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고 영진

— 차례 —

- | | |
|-----------------------|------------------|
| 1. 들어가는 말 | 3. 형용사에서의 「-느-」의 |
| 2.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 문제 | 쓰임과 의미 |
| | 4. 맺는 말 |

〈벼리〉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는, 「(배가)고프다/(배가)고픈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현재 시제」가 두 가지 있다. 이것은 표준 한국어에서는 동사에만 나타나는 「-느-」가 제주도 방언에서는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이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느-」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살폈다. 그 결과, 서술법 「흐라체」(낮춤)의 경우에는 「-ㄴ/은-」이 쓰이는 바, 이들은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이며, 융합형으로 「-나」가 있다. 그리고 의문법 「흐라체」에는 언제나 「-느-」만이 쓰인다. 또한 상대높임의 「-ㅂ/읍-」 다음, 즉 「흠서체」(높임)에는 서술법과 의문법 모두에 「-네-」가 사용되는데, 이것 역시 융합형이며, 수의적 변이형태로 「-니-」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형용사에 나타나는 「-느-」의 문법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항상성」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느-」가 들어 있으면 「항상성」을 의미하고, 그것이 들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일시성」을 뜻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형용사, 현재 시제, 일시성, 항상성.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의 목적은 제주도 방언의 이른바 「현재 시제」,¹⁾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형용사의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우리가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의 「현재 시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것이 표준 한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의 예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 (1) 가. 할망 배 고프다. (할머니 배 고프다.)
- 나. 할망 배 고픈다.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 203)²⁾

제주도 방언에서 형용사가 「현재」를 표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³⁾ (1)가의 그것은 표준 한국어의 그것과 형

1) 필자가 「현재 시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1)가, 나,의 「고프다」와 「고픈다」를 함께 지칭하고 싶기 때문이다. (1)나,의 밑줄 친 부분의 「-나-」에 대해서는 「양태(혹은 양상, modality)」를 나타낸다는 몇몇 연구가 있는데(홍 종립 1991, 우 창현 1998나), 거기에서도 「-나-」이 쓰이지 않은 (1)가의 「고프다」와 같은 경우까지 「양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상(aspect)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아닌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것이 본 바탕인 형용사에 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현재 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이 글에서 제주도 방언 관련 논지에서 자료를 인용했을 때에는, 그것의 표준어 역도 원문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 다만, 원문에 번역이 없는 경우에는 필자가 표준어로 옮긴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지는 않았다.

3) 15세기 한국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15세기의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영경(2003 : 13~33) 참조.

태적으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형용사가 (1)ㄴ과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2)ㄴ에 보이는 「-ㄴ-」에 관해서는 현 평효(1975/1985),⁴⁾ 홍 종립(1983/1991)⁵⁾ 및 우 창현(1998ㄴ, 2005)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 앞선 연구에서 공통되는 점은, 형용사에 나타나는 「-ㄴ-」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현 평효(1985)를 논외로 한다면, 「-ㄴ-」이 동사에 나타난 경우이건 형용사에 나타난 경우이건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 물론, 형태가 같으면 의미도 같다는 원칙 하에서 보자면,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를 같이 다루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와 형용사와 함께 쓰였을 때를 갈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사에는 (1)ㄴ, ㄴ과 같은 대립이 없으나, 형용사에는 확실한 대립이 있으므로, 대립이 있는 쪽을 살펴보는 편이 훨씬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ㄴ-」과 관련한 여러 가지들, 형용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는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3장에서는 그것의 쓰임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15세기 한국어에

4) 이 논문은 현 평효(1985 : 3~133)에 다시 실렸는데, 이 글에서는 현 평효(1985)에 재수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5) 이 글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홍 종립(1991 : 33~52)에 다시 실렸는데, 본고에서는 후자를 이용하였다.

6) 자세한 것은 뒤의 2장과 3장의 관련 부분에서 다루겠다.

서 형용사와 함께 쓰인 「-ㄴ-」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 문제

이 장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의 형태 분석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형태소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새롭게 분석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될 만한 것 혹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2.1. 서술법 낮춤(「하라체」)의 경우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것들은 「-ㄴ/은-」과 「-나」이다.

2.1.1. 우선 「-ㄴ/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는데, 다음 예를 보아 주기 바란다.

(2) ㄱ. 이 신은 나안틴 크다. (이 신은 나한테는 크-) (홍 종립 1991 : 34~35)

ㄴ. 이 신발은 나안틴 죽는다. (*이 신발은 나에게 작는다.)
(우 창현 2005 : 396)

(2)ㄱ은 홍 종립(1991 : 34~35)에 실린 것을 필자가 약간 수정한 것인데, (2)ㄱ, ㄴ의 밑줄 친 부분에서 「-ㄴ/은-」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임을 새삼스럽게 들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주도 방언 연구의 1-2세대라 할 현 평

호(1985)나 홍 종립(1991) 등은 자음 어간 다음의 경우에, (4)에 보이는 「-나」만 언급하고 있고, (2)ㄴ의 「-은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반면, 젊은 세대인 우 창현(1998ㄴ, 2005) 및 문 숙영(2004)에는 「-은다」가 나온다. 그렇다면 「-은다」와 「-나」는 세대에 따른 차이인가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모음 어간 아래에 「-ㄴ다」가 오고 있다면, 자음 어간 다음에 「-은다」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는, 현 평효와 거의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 용준(1980 : 903)에, 인용문에서의 그것이기도 하다, 「-은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 (3)이 바로 그것이다.

(3) ㄱ. 먹은덴 흡테다. (먹는다고 합디다.)

ㄴ. 먹은덴⁷⁾ 말이 뉘 말가? (먹는다는 말이 된 말인가?) (이상 현 용준 1980 : 903)

물론 (3)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도 말할 수 있다.

(3)' ㄱ. 먹넨 흡테다. (먹는다고 합디다.)

ㄴ. 먹넨 말이 뉘 말가? (먹는다는 말이 된 말인가?)

(3)은 「먹은다」의 인용이고, (3)'는 「먹나」의 인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인용되기 이전의 발화에는 양쪽 모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홍 종립과는 완전한 동세대라 할 수 있는 진 성기⁸⁾가 채집한 자료집 『남국의 민요』(1977 : 212)에는

7) (3)ㄱ과 (3)ㄴ의 밑줄 친 부분의 표기는 현 용준(1980 : 903)의 것 그대로이다.

8) 이들 네 사람이 태어난 해를 조사해 보았더니, 각각 현 평효(1920년), 현 용준(1931년), 진 성기(1936년), 홍 종립(1937년)이었다.

「엷은 붙는다」(엷은 붙는다)가 올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것은 마침법에도 쓰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것을 세대에 따른 차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⁹⁾

그런데 (3)과 (3)'의 예들은, 필자의 직관으로는, 조금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인용문이 아닌 마침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2)ㄴ의 「죽는다」를 (4)ㄴ에서와 같이 「죽나」라고 해도 의미에 변화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죽나」의 「-나」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예를 보기로 한다.

- (4) ㄱ. *이 신은 나안텐 크나. (*이 신발은 나에겐 크다.)
- ㄴ. 이 신은 나안텐 죽나. (이 신은 나한테 작-) (홍 종립 1991 : 36)

(4)에서 우리는, 「-나」는 모음 어간과는 결합할 수 없고, 자음 어간과만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나」에 대하여, 홍종립(1991 : 38~39)은, 김완진(1975)을 인용하여, 「죽는다」에서 모음 「으」가 탈락하여 「죽나」가 되었고, 그 결과 자음이 셋 이어지므로, 의미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다」의 「ㄷ」이 탈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한다.¹⁰⁾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죽는다」와 같이 안정된 음절 구조에서 「느」의 모음 「으」가 왜 탈락하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우창현 1998ㄴ : 568). 또 「죽나」가 홍종립(1991)이 말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서술법에만 나타나야 할 텐데, 「철순 밥 잘 먹나?」

9) 그럼에도 왜 현 평효(1985)와 홍종립(1991)에는, 「-나」만 나오고, 「-은다」는 나오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10) 홍종립(1991 : 38~39)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먹는다→먹나→먹니아→먹나」이다.

(철수는 밥 잘 먹어?)처럼 의문법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 창현(1998: 568)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를 「-ㄴ-」에 반말체의 「-아」가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이 우 창현(1998: 568~570)의 견해이다.

그러나 우 창현(1998)의 해결책에도 문제는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의문법에 나타나는 「-나」가 과연 제주도 방언의 문법 기술에 이용해도 괜찮은 자료인가 하는 점이다. 현 평효(1985: 78~79)에 의하면, 「-나」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난 단어에만 접미되어서 발화를 종결시키는 평서법으로서의 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난 단어이건 자음으로 끝난 단어이건 두루 접미되어서 발화를 종결시키는 의문법 어미로서의 활용”이라고 한다. 이어서 그는 “이 의문법은 주로 동년배 사이에서 쓰이는데, 이것은 아마 개신파의 물결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현 평효 1985: 79)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쓰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제주도 방언의 그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 창현(1998)의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언어 접촉 혹은 방언 변화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방언의 문법을 기술하는 경우에 과연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나」가 반말체가 아니라는 증거는 여럿 있다. 우선 「-나」가 반말체라면 다음 문장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5) ㄱ. *이 신은 나안틴 크나마썸? (이 신발은 나에겐 커요?)

ㄴ. *이 신은 나안틴 죽나마씀? (이 신발은 나에겐 작아요?)

제주도 방언에는 표준어의 「-요」에 해당하는 「-마씀」이 있는 바, 이것이 「혀여체」(반말체)에 두루 결합하여 상대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5)에서 보는 것처럼, 「-마씀」은 「-나」와 결합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나」가 반말체라면, 서술법에서 자음 어간만이 아니라 모음 어간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할 텐데, (4)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저 아인 공불 원 안 혀여」(저 애는 공부를 전혀 안 해.)→저 아인 공불 원 안 흔텐 혀여라.(저 애는 공부를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에서 보는 것처럼, 반말은 인용문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바뀌지만, 「-나」는 앞의 예문 (3)'에서 보았듯이 인용문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일반적으로 반말은 비공식적인 장소, 예컨대 집 안에서는 경우에 따라 어머니에게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집에서라고 해도 어머니에게 「밥은 몇 시에 먹나?」(밥은 몇 시에 먹어?)와 같이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어머니를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나」의 높임법의 등분은 반말체가 아닌 「혀라체」(현 평효 1985:107)임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나」를 「-ㄴ+아(반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2.1.2.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서술법 낮춤(「혀라체」)의 경우에, 「-ㄴ/은다」는 그 쓰임의 조건은 간단히 설명이 되나 표준어와는 다른 점이 있으며, 「-나」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ㄴ/은다」를 보기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인

자료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역사적으로 「-ㄴ다」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이다(허 웅 1987 : 18). 이 「-ㄴ다」의 기원에 대하여, 허 웅(1987 : 18)은 “즐기의 끝소리가 닿소리인 경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그것이 홑소리인 경우에는 「-ㄴ-」의 홑소리가 줄고 「ㄴ」이 즐기의 종성으로 발음”된 데에서 찾고 있다.¹¹⁾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 16세기에는 ‘인용을 나타내는 문장에 국한되며, 안긴월의 풀이 말에 한정’(허 웅 1987 : 19)되다가, 17세기에는 완성되어 “안긴월에서는 「ㅎ는다」형이 나타남을 보지 못”(허 웅 1987 : 87)하게 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표준 한국어의 「-ㄴ다」가 16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인용문에서, 그것도 모음 어간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17세기에는 마침법에도 「-ㄴ다」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은 “안긴월에서 일어난 변화가 끝난 자리에까지 번진 결과”(허 웅 1987 : 88)이다. 이렇게 되자 자음 어간 아래에 쓰이던 「-는다」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자음 어간 다음의 「-는다」가 「-ㄴ다」로 바뀔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유추에 의한 「-는다」(허 웅 1987 : 88~89)의 등장이었다.

제주도 방언에서는, 모음 어간 아래에서의 「-ㄴ다」와 자음 어간 아래에서의 「-는다」가 양립하고 있던 시기에, 두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7세기 한국어에서와 같은 유추의 길이다. 그러나 제주도 방언에서도 유추가 일어나기는 했으나, 그 방식은 좀 달랐다. 즉, 17세기의 한국어에서는 형태

11) 그 원인에 대하여, 허 웅(1987 : 19)은 “기저 구조의 「ㅎ는다」형은, 안긴월에서는 때때로 표시가 분명해야만 할 필요가 없으므로, 발음을 간편하게 하려는 노력 경제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 증가로 「-는다」가 되었다면(김 완진 1975 : 11), 제주도 방언에서는 모음 「으」를 삼입함으로써 「-은다」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른바 「분간어미」(최 현배 1982 : 166~167)들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므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을 걸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홍 종립(1991)이 말하는 「먹는다→먹ㄴ다→먹ㄴ아→먹나」의 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 창현(1998)이 「먹는다」에서 모음 「으」가 탈락할 이유가 없는데 무리하게 탈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한 비판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미 16세기부터, 인용문이라는 한정된 상황에서이긴 하나, 모음 어간 아래에 「-는다」가 쓰이고 있었고, 17세기에 이르자 「-는다」는 마침법의 모음 어간 다음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자음 어간 다음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제주도 방언에서는 그것을 홍 종립(1991 : 38~39)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또 하나의 길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다. 「죽나」와 「죽은다」가 나타나는 환경이 자음 어간 아래로 같은 데다가, 높임법의 등분도 다르지 않으며, 의미의 차이도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은다」는 「-나」와 아무런 의미의 차이 없이 넘나들면서 쓰일 수 있는 수의적 변이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¹²⁾

12) 문 숙영(2004 : 309)도 「-나」는 “평서형, 「-는다」의 이형태”라고 보고 있다.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수의적 변이형은 형태적 통일이나 분화되어 가는 과도기 단계를 반영하는 수가 많은데, 「-은다」와 「-나」도 그러한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셨다. 다시 말해 「-

이러한 우리의 설명은 역사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ㄴ다」가 먼저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끌려 「-은다」 및 「-나」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먹는다」에서 「으」가 탈락할 조건이 없다는 데에서 자유롭다. 왜냐하면 「-ㄴ다」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즉 공시적으로 「으」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고 있던 「-ㄴ다」가 「-는다」를 밀어 내면서 자음 어간 다음에 온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형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평효(1985 : 82, 107~108)에서는 이 「-나」를 「-ㄴ+아」로 분석하여,¹³⁾ 「-ㄴ-」은 직설법 형태이고, 「-아」는 「흐라체」의 평서법 어미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물론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았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긴다. 현 평효(1985 : 107)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ㄴ다」와 「-나」는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는 모음 어간 다음에 오고, 후자는 자음 어간 다음에 온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ㄴ+다」 및 「-ㄴ+아」로 분석되는 것이라면, 현 평효(1985)가 말하는 직설법 형태는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모음 어간 다음에도 자음 어간 다음에도 「-ㄴ-」이 온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를, 융합형으로 보고, 더 이상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¹⁴⁾

은다」와 「-나」 사이의 불규칙적인 변이 관계를 규칙적 변이 관계로 바꾸려는 의식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13) 우 창현(1998ㄴ)도 이것을 「-ㄴ+아」로 분석하여, 「-ㄴ-」에는 양상의 의미를, 「-아」에는 반말의 의미를 주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14) 허 웅(1995 : 539~540)에는 「-으니라」와 「-느니라(나니라)」가 한 형태

2.2. 의문법의 「흐라체」(낮춤)에서는 「-느-」가 쓰이는데, 이것은 다음 예에서 확인된다.

- (6) ㄱ. 이 신은 느안틴 크느냐? (*이 신발은 너에겐 크느냐?)
- ㄴ. 이 신은 느안틴 줌느냐? (*이 신발은 너에겐 작느냐?)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의문법에 쓰인 「-느-」는 자음 어간이나 모음 어간을 가려잡지 않는다. 다만 ㄴ 어간의 경우에는, 「떨느냐? → 떠느냐?」와 같이, 어간의 「ㄴ」이 탈락한다. 의문법의 낮춤에 「-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이 15세기 한국어의 「-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느냐」가 관형사형에서 유래한 것임은 고 영진(2003 : 109)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관형사형처럼 하나로 굳어진 형식 안에서는 변화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이 효상 1995 : 217). 그러므로 (6)ㄱ, ㄴ의 밑줄 친 부분의 「-느-」는 15세기 한국어의 「-느-」가 「으」의 소실로 그 모습이 「-느-」로 바뀌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 창현(1998 : 569~570)에 의하면, (6)에 보이는 「-느-」는 그 기저형이 「-ㄴ-」인데, 「으」가 삽입되어 「-느-」가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잡는다고 해서 문법의 설명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왜 모음이 삽입되며, 또 하필이면 그것이 왜 「으」인가에 대한 설명도 쉽지 않다.¹⁵⁾ 게다가 의문법에서는 언제나 「-느-」

소인지 두 형태소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융합형의 공시적인 형태소 분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허 웅(1995 : 540)은 ‘옛말투라는 딱지를 붙여, 무리를 무릅쓰고 「-으니라」와 「-느니라」를 한 형태소로 묶어 두고 있다.’

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그 기저형을 「-ㄴ-」으로 잡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2.3. 앞에서 본 것들은 모두 낮춤의 경우였는데, 다음은 높임의 경우이다.

(7) 가. 흑젠 이디서 브답네까? (학교는 여기서 가깝습니까?)

나. 예, 이디션 브답네다.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 (이상 홍 종립 1991:40)

위의 예는 높임, 즉 「흡서체」의 경우로, 이것도 비교적 수월하게 「브디+디+네+까/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홍 종립(1991:41)은, 「-디네까/다」의 「-네-」를, 「-네+에-」로 분석하고 있으나,¹⁶⁾ 이것은 이른바 융합형이므로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네-」로 보기로 하는데, 이것은 김 석득(1992:192~193)에서 말하는 「의무적 통합형」이다.

「-네-」의 근원을, 홍 종립(1991:41)은 15세기 한국어의 「-느-」 및 「-이-」와 관련지어 해석하면서, 「느이→느이→니→내→네」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 그 근거로 그는,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

15) 물론 그 조건은 우 창현(1998:570)에서처럼 「떡_ㄴ냐」가 되어 자음 셋이 연속되므로 「으」를 삽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조건에 대한 설명일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16) 이에 대한 홍 종립(1991:41)의 설명에는 좀 모호한 점이 있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의 기술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 형태의 근원을 중세국어의 ‘-느이-’로 소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느-’는 현재형 어미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느-’의 고행이며, ‘-이-’는 공손법 어미이다. 우리는 그 변화 과정을 <느이⇒느이⇒니⇒내⇒네>로 잡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내-’ 또는 ‘-네-’는 두 형태소의 결합체임을 알 수 있다. E. A. Nida가 말하는 ‘simultaneous occurrence’이다. 이의 기술은 ‘-내-’·‘-네-’, ‘-애-’·‘-에-’가 될 것이다.”

니지만, 이것이 [네]로도 [내]로도 발음되는데, 특히 무가에서는 확실히 [내]로 발음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보다는, 「늑이」에서 음라우트 현상이 일어나 「늑이」가 되고(허 웅 1989 : 144), 「ㅎ」이 음가를 소실하면서 「늑이」가 되었다가, 「으」의 음가 소실로 「네」가 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왜 「내」가 아니고 「네」인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표준 한국어에서도 15세기 한국어의 「-느-」의 후신인 「-느-」가 녹아 있는 「하계체의 평서형」이 「-네」(한 동환 1991 : 73)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7)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뵈답니까?/뵈답니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일 그것이 「-내까/내다」라면 [니까/니다]로도 발음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문제가 된다. [애]를 [이]로 발음하는 현상은 「애」와 「에」를 구분하지 않는 방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 승철(2000 : 185~186)이 지적하고 있는 바, 15세기 한국어의 이중모음 「익」은 「애」로 합류한 중부 방언과는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에」로 합류하였고, 그 결과 「애/에」의 변별을 사라지게 하였다는 것도 참고가 된다.¹⁷⁾

2.4. 형태 분석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8) ㄱ. 서술법 「흐라체」(낮춤)의 경우에 「-ㄴ/은-」이 쓰이는데, 이들은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로서, 「-ㄴ-」은 모음 어간 아래에, 「-은-」은 자음 어간 아래에 온다. 그리고 「-은다」와 같이, 자음 어간 다음에 오는 것으로, 융합형인 「-나」가 있다.

17) 정 승철(2000 : 185~186)에서 들고 있는 예들은 단어의 첫음절에서 실현되는 것들이기는 하다.

- 나. 의문법 「하라체」에는 「-느-」가 쓰이는데, 이것은 어간이 자음이냐 모음이냐를 가려잡지 않는다.
- 다. 상대높임의 「-히/읍-」 아래에서는 서술법과 의문법 모두에 「-네-」가 나타나는 바, 이들은 언제나 「-히/읍네다, -히/읍네까」로 쓰이는, 이른바 「의무적 통합형」(김 석득 1992: 192~193)이다. 이것의 수의적 변이형태로 「-니-」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교체 조건은 (8)ㄱ의 「-ㄴ/은-」을 제외하고는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것을 이들의 대표형으로 잡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잠정적으로 「-느-」를 그 대표형으로 삼기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15세기 한국어의 「-느-」의 후신이라는 점 및 표준 한국어에서의 그것과의 공통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3. 형용사에서의 「-느-」의 쓰임과 의미

제주도 방언의 「-느-」의 쓰임과 의미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형용사와 함께 나타나는 「-느-」만을 다룬 독립한 논문은 한 편도 없는 형편이어서, 그 논의는 대부분 부분적인 데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느-」의 이러한 쓰임은, 표준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므로,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느-」가 형용사와 함께 쓰일 때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선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행해진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연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

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3.1.1. 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는 현 평효(1985)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동작주의 동작·성질·상태를 지정하여 직접 말하는 서법”, 즉 직설법이라고 보고 있다(현 평효 1985: 79). 그러나 그는 형용사에 나타나는 「-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제시된 예들도 동사로 한정되어 있다. 형용사와 함께 쓰인 「-느-」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다루려고 한 시도는, 소략하긴 하지만, 홍 종립(1991: 49~51)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다음의 예도 그의 것이다.

- (9) 가. 이 구들은 춤 댓다. (이 방은 참 따뜻하다.)
- 나. 이 구들은 댓다. (이상 홍 종립 1991: 49)

그는, (9)가, 나에 대하여, 전자는 「이 방이 발화 시점에서 따뜻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발화시의 상태라기보다는 이 방의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말한다. 곧, (9)가는 「일종의 지각 작용에 의한 판단」이고, (9)나는 「화자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 주인이 아닌 손님이 (9)나와 같이 말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다.¹⁸⁾ 이를 토대로 홍 종립(1991: 52)은 「-느-」에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實演) 판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 창현(1998나: 571)은 홍 종립(1991)이 “실연 판단의 의미를 실연성과 대립되는 가능성을 제로화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한다. 즉, 「이 구들은 댓다」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방이 따뜻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것은 화자가 직접 자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

18) 이상은 홍 종립(1991: 49~50)을 필자가 요약한 것이다.

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방이 따뜻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우 창현 1998ㄴ : 571). 그리하여 그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느-」의 의미라고 본다(우 창현 1998ㄴ : 579).

그렇지만 홍 종립(1991)이나 우 창현(1998ㄴ)의 논지에는 문제점도 몇 가지 눈에 띈다. 우선 그들은, 「-느-」에만 주목한 나머지, 「-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배풀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이 두 경우를 대립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홍 종립(1991)의 주장대로 「-느-」가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 판단」이라면, 그것이 쓰이지 않았을 때의 의미는 그가 「실연 판단」의 대립 개념으로 들고 있는 「개연(蓋然) 판단」(홍 종립 1991 : 50)을 누구나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와 무관하게, 앞에서 확인했듯이, (9)ㄱ과 같은 문장에 「지각 작용에 의한 판단」이라는 의미를 준다(홍 종립 1991 : 49). 그러나 「지각 작용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경험 혹은 지식에 의한 판단」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설명으로 (9)ㄱ과 (9)ㄴ의 의미차가 무엇인지 해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⁹⁾ 우 창현(1998ㄴ)을 따랐을 때에는 「-느-」의 의미가 「화자의 확신」이므로, 그것이 쓰이지 않은 문장은 「화자의 회의(의심)」을 나타낸다고 해야 하지만 그렇게는 볼 수 없다. (9)ㄱ에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 창현(2005 : 396)도 “「-느-」이 쓰이지 않으면 단순한 사실의 의미만이 확인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9) 게다가 「실연 판단」이라는 용어도 그다지 적절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의미도 그리 명확하지 않거니와, 문법의 설명을 위해서는 단지 그만이 사용하는 용어로 일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3.1.2.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했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형용사와 함께 쓰인 「-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느-」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대립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선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9)ㄱ은 방에 들어가서 「이 방이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발화할 수 없지만, (9)ㄴ은 방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도 「이 방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만 있다면 성립한다는 점이다. 즉 어떠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느-」가 쓰이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느-」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각각 「새로 앎」(신정보)과 「이미 앎」(구정보)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실연 판단」이나 「화자의 확신」보다는 「새로 앎 / 이미 앎」이, 「-느-」가 쓰였을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쓰이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괄하여 대립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훨씬 크다고 본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형용사와 함께 쓰인 「-느-」는 「이미 앎」으로 해석하여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의 주장들 가운데의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 (10) ㄱ. 난 지금 가이가 좋다. (난 지금 그 애가 좋다.)
- ㄴ. *난 지금 가이가 좋은다/좋나.

「-느-」의 의미가 「화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한 실연 판단」

(홍 중립 1991) 혹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확신」(우 창현 1998)이라면, (10)ㄴ이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0)의 화자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의 경험상 그 애가 좋」고, 그것을 「확신」할 때에도 (10)ㄴ이 아닌 (10)ㄱ과 같이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실은 또한 「새로 앓 / 이미 앓」으로도 (10)과 같은 예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느낌형용사의 주어는 화자 자신이므로, 화자가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감정」을 처음 알았다거나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균색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형용사와 함께 쓰인 「-느-」의 의미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형용사와 함께 쓰인 「-느-」의 의미는 「항상성」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느-」가 없으면 「일시성」을 뜻하고, 「-느-」가 있으면 「항상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⁰⁾ 이에 따르면, 위의 (10)에서 「내가 그 애가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 말하면 「지금」에 한정된 것으로서 언제든 다시 싫어질 수가 있으므로, 「좋은다/좋나」가 아닌 「좋다」가 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좋다」가 이른바 느낌형용사로서, 사람의 감정이란 언제나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긍이 갈 것이다.

20) 본고에서 말하는 「일시성」과 「항상성」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구도(工藤)(2006: 114~117)에서 이미 사용된 바가 있음을 밝혀 둔다. 구도(工藤)(2006: 114~117)에 따르면, 일본어의 한 방언인 미야기켄(宮城縣)의 나카다(中田) 방언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박 진호(2006)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15세기 한국어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15세기 한국어에서 「-어 잇-」이 형용사와 결합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속성을 나타내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3.1.3. 형용사에 나타나는 「-느-」의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와 관련한 상대높임법의 쓰임을 간략히라도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른바 「허여체」(반말체)에서는, 이 「-느-」가 쓰이지 않으므로, 「일시성」과 「항상성」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 대상은 「허라체」(낮춤)와 「흡서체」(높임)가 되는데, 편의상 그 각각을 다시 서술법과 의문법으로 나누어, 거기에 나타나는 「-느-」의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3.2. 먼저 「허라체」에서 「-느-」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서술법·의문법의 순서로 검토해 보겠다.

3.2.1. 아래 예의 (11)은 「-느-」가 쓰이지 않은 것이고, (12)는 「-느-」가 쓰인 것이다.

- (11) 가. 이 구들은 듯다. (이 방은 따뜻하다.) (홍 종립 1991 : 49)
- 나. 이 구들은 지금 듯다.
- 다. *이 구들은 느랑 듯다.
- (12) 가. 이 구들은 듯은다.
- 나. *이 구들은 지금 듯은다.
- 다. 이 구들은 느랑 듯은다. (이 방은 늘 따뜻하다.)

(11)가와 (12)가는 홍 종립(1991 : 49)에 나와 있는 예, 「이 구들은 춤 듯다」(=9가) 및 「이 구들은 듯나」(=9나)에서,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필자가 임의로 「춤」(참)을 제외한 것이 (11)가이고, 「듯나」를 「듯은다」로 바꾼 것이 (12)가이다. 위 예문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듯+다」 및 「듯+은+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후자

에 보이는 「-은-」이 본고에서 말하는 「항상성」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먼저 (11)ㄴ, ㄷ과 (12)ㄴ, ㄷ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이들 문장은, 다른 조건은 모두 같지만, ㄴ에는 부사 「지금」이, 그리고 ㄷ에는 부사 「느랑」(늘)이 쓰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문법성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11)ㄴ은 문법적임에 비하여 (12)ㄴ은 비문법적이고, (11)ㄷ은 비문법적임에 비하여 (12)ㄷ은 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은-」이 없는 「듯다」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일시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의 의미인 「느랑」과 공존할 수 없고, 「-은-」이 포함된 「듯은다」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항상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과 모순이 되어 비문이 된 것이다. 반면에 (12)ㄴ과 (12)ㄷ에는 「항상성」을 의미하는 「-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방은 언제나 따뜻하다」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따라서 「지금」이 쓰인 (12)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12)ㄴ의 「지금」을 「지금도」로 바꾸면 문법적이 된다. 「-도」가 들어감으로써 「일시성」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도 「-은-」의 의미가 「항상성」임을 말해 주는 사실의 하나로 해석된다.

3.2.2. 이번에는 의문법의 「흐라체」(낮춤)에서는 「-느-」의 쓰임이 어떠한지를 보기로 하는데, 다음 예는 (11)~(12)를 그대로 가져다가 문장의 종류만 서술법에서 의문법으로 바꾼 것이다.

- (13) ㄱ. 이 구들은 듯으냐? (이 방은 따뜻하냐?)
 ㄴ. 이 구들은 지금 듯으냐?
 ㄷ. *이 구들은 느랑 듯으냐?
- (14) ㄱ. 이 구들은 듯느냐?
 ㄴ. *이 구들은 지금 듯느냐?
 ㄷ. 이 구들은 느랑 듯느냐? (이 방은 늘 따뜻하냐?)

(13)ㄱ과 (14)ㄱ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뜻+으니+아」 및 「뜻+느+(으)니+아」로 분석된다. (14)ㄱ에서 분석되어 나온 「-느-」는 「항상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으)니-」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형태소이다(고영진 2003: 106~110).

위의 예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의문법에서도 「-느-」는, 「지금」과는 공존하지 못하는 데에 비하여, 「느랴」와는 공존할 수 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느-」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의 의미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일시성」의 의미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3)ㄱ의 「뜻으냐」는 「방이 따뜻한 상태가 일시적이냐」는 뜻이고, (14)ㄱ의 「뜻느냐」는 「이 방은 언제나 따뜻하냐」는 뜻으로 「항상성」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상성」의 의미는, (14)ㄷ과 같이 부사 「느랴」이 쓰이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느랴」이 없어도 그러한 의미임에는 변함이 없다.²¹⁾

3.3. 이어서, 「흡서체」(높임)에서의 「-느-」의 쓰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앞의 3.2.에서 보았던 예들을, 상대 높임법만 「하라체」에서 「흡서체」로 바꾸어, 서술법·의문법의 순서로 검토해 보겠다.

21) 그러나 이러한 「일시성/항상성」의 대립은 의문법 낮춤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13)ㄷ의 문법성은 뒤에서 볼 (17)ㄷ의 그것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의문법 낮춤은 관형사형에 유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3.3.1. 우선 서술법 「홉서체」의 예이다.

- (15) 가. 이 구들은 돏수다. (이 방은 따뜻합니다.)
나. 이 방은 지금 돏수다.
다. *이 방은 느랑 돏수다.
- (16) 가. 이 방은 돏읍네다.
나. *이 방은 지금 돏읍네다.
다. 이 방은 느랑 돏읍네다. (이 방은 늘 따뜻합니다.)

(15)가과 (16)가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돏+수+다」 및 「돏+읍+네+다」로 분석된다. (16)가에서 분석되어 나온 「-네-」에는 「항상성」의 「-느-」가 녹아 있다. 이들의 문법성은 앞에서 보았던 (11), (12)와 꼭 같은데, 그 이유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방이 따뜻한 상태」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15)가, 나만이 문법적이고, 「방이 따뜻한 상태」가 항상적일 때에는 「-네-」가 쓰인 (16)가, 다만이 문법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5)다의 비문인 이유는 「항상성」을 표시하는 「-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를 의미하는 부사 「느랑」이 쓰였기 때문이며, (16)나인 비문법적인 이유는 부사 「지금」과 「항상성」을 표시하는 「-네-」가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2.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의문법 「홉서체」의 경우이다.

- (17) 가. 이 방은 돏수과? (이 방은 따뜻합니까?)
나. 이 방은 지금 돏수과?
다. *이 방은 느랑 돏수과?
- (18) 가. 이 방은 돏읍네까?

- ㄴ. *이 방은 지금 뚝뚝하니까?
- ㄷ. 이 방은 느랑 뚝뚝하니까? (이 방은 늘 따뜻합니까?)

(17)ㄱ과 (18)ㄱ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뚝+수+과」, 「뚝+읍+네+까」로 분석할 수 있다. (17)~(18)에서도 「-네-」가 포함된 (18)ㄱ, ㄷ은 「항상성」의 의미가 깃들여 있으며, 「-네-」가 없는 (17)ㄱ, ㄴ은 「일시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늘, 항상」을 의미하는 「느랑」이 쓰인 (17)ㄷ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대로 「지금」이 쓰였을 경우에는 「항상성」의 「-느-」가 융합되어 있는 「-네-」가 들어간 (18)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²²⁾

3.4.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서의 이러한 「일시성/항상성」의 대립은, 「현재 시제」의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거 혹은 완료(perfect)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시-(-았-)」와 결합하게 되면, 이러한 대립은 사라진다. 「흐라체」에서는 「-아시냐?/았저」는 가능하나(뚝아시냐?/뚝았저.) 「-아시느냐?/아신다」(*뚝아시느냐?/*뚝아신다.)는 불가능하며, 「흡서체」에서는 「-았수과?/았수다」(뚝았수과?/뚝았수다.)는 가능하지만 「-아십네까?/아십네다」(*뚝아십네까?/*뚝아십네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느-」가 시제상 현재(혹은 최소한 비과거)이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되나, 이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항상성」의 「-느-」는 「-(으)크-」와도 공존하지 못한다(*뚝아시크다/*뚝아시크네다). 이것은 「항상성」의 「-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제하는 데에 비하여, 「-(으)크-」는 추정을 뜻

22) (18)ㄴ은 사람에 따라서는 문법적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표준어의 간섭에 의한 것일 것이다.

하기 때문에, 두 형태소가 의미상의 충돌을 일으키는 데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형사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쓰이는 「-느(냐)」가 관형사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고 영진 2003: 109), 이것은 일견 의아스럽게 생각되기는 한다. 그러나 표준 한국어에서도 마침법과 관형사형의 시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갈 것이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느-」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먼저 우리의 출발점은 왜 「-느-」가 표준 한국어와는 달리, 형용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표준 한국어에서 「-느-」를 분석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입장에 섰을 때,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그것이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임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제주도 방언에서는 「-느-」가 형용사와도 결합하므로, 왜 그러한지를 밝혀 낼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4.1.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형태 분석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살폈다. 그 결과, 서술법 「흐라체」(낮춤)의 경우에는 「-ㄴ/은-」이 쓰이는 바, 이들은 음운 조건에 의한 변이형태이며, 융합형으로 「-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문법 「흐라체」에는 언제나 「-느-」만이 쓰인다. 또 상대높임의 「-ㅂ/읍-」 다음, 즉 「홉서체」에는 서술법인가 의문법인가에 상관없이,

「-네-」가 나타나는 바 이것 역시 융합형이며, 그것의 수의적 변이형태로 「-니-」가 있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높임법 서법		흐라체		홑서체	
		형태	예	형태	예
서술법	모음어간	-ㄴ-	큰다	-네/니-	큘네다
	자음어간	-은(다)/-나	죽은다		죽읍네다
의문법	모음어간	-느-	크느냐?		큘네까?
	자음어간		죽느냐?		죽읍네까?

4.2. 다음으로 우리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느-」의 문법적 의미를 더듬어 보았는데, 그것은 「항상성」이라고 정리하였다. 즉 「-느-」가 들어 있으면 「항상성」을 의미하고, 그것이 쓰이지 않으면 「일시성」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들을 뭉뚱그려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높임법 의미		흐라체		홑서체	
		형태	예	형태	예
일시성	서술법	X	죽다	X	죽수다
	의문법	X	죽으냐?	X	죽수과?
항상성	서술법	-은/ㄴ-/(-나)	죽은다	-네/니-	죽읍네다
	의문법	-느-	죽느냐?	-네/니-	죽읍네까?

4.3. 이러한 「일시성/항상성」의 대립은 형용사에만 나타나고 동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동사에는 그러한 대립이 없는지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시-」나 「-(으)크-」 등이 쓰였을 때에도 그러한 대립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더불어, 만일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더욱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강 정희. 1982. 「제주 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 과정에 대하여」,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220쪽.
- 강 정희. 1987. 「제주 방언의 접속 어미와 동작상 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221~236쪽.
- 고 영진. 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 한글 학회. 7~43쪽.
- 고 영진. 2003.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형태론」, 한글 262. 한글 학회. 97~122쪽.
- 김 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탐출판사.
- 김 완진. 1975.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7~16쪽.
- 남 기삼. 1982/1996. 「국어의 공시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485~494쪽.
- 문 숙영. 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 문 숙영. 2004. 「제주 방언의 현재시제 형태소에 대하여」, 형태론 6권 2호. 형태론 편집위원회 역음. 도서출판 박이정. 293~316쪽.
- 박 용후. 1960.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 박 진호. 2006. 「중세국어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 잇-’의 상적 의미」, 구결 연구 제17집. 구결학회. 227~242쪽.
- 서 정수. 1996. 『국어 문법』(수정 증보판).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성 낙수. 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문화사.

- 우 창현. 1998ㄱ. 「제주 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 우 창현. 1998ㄴ. 「제주 방언의 양상 선어말어미 ‘-ㄴ-’에 대하여」, 순천향 어문논집 제5집. 순천향대학교 순천향 어문연구회. 563~582쪽.
- 우 창현. 2005. 「제주 방언의 ‘-느-’에 대하여」, 형태론 7권 2호. 형태론 편집위원회 엮음. 도서출판 박이정. 387~402쪽.
- 이 남덕. 1982. 「제주 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 체계에 대하여」, 논총 4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7~54쪽.
- 이 승녕. 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 영경. 2003.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이 효상. 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207~250쪽.
- 정 승철. 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 21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79~189쪽.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6.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현지 학술 조사 보고」,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 국어교육과. 135~227쪽.
- 제주방언연구회 편. 1995. 『제주어 사전』. 제주도.
- 진 성기. 1977. 『남국의 민요』. 정음사.
- 최 현배. 1982. 『우리 말본』(아홉번째 고침). 정음사.
- 한 동완. 1991.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 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허 응.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 1991.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현 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 현 평효. 1975/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제주도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3~133쪽.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고 영진

홍 중립. 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8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48~226쪽.

홍 중립. 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 범주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
위 논문.

工藤眞由美[구도 마유미]. 2006. 「アスペクト・テンス」, 方言の文法. 岩
波書店. 93~136쪽.

고 영진

610-0394

日本國 京都府 京田辺市 多々羅都谷 1-3

同志社大學 言語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助教授

누리편지: yko59@hotmail.com



<abstract>

Two Present Tenses of Adjectives in Cheju Dialect

Ko Young-jin

Cheju Dialect has two present tenses for adjectives. One is indistinguishable from standard Korean, the another is different from standard Korean. In the dialect form, the prefinal ending ‘-ni-’ is placed within an adjective, but in standard Korean, ‘-ni-’ is only used to conjugate verb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ain how the two present tenses in adjectives are used in Cheju dialect.

First, the morph ‘-ni-’ has various allomorphs, these are subject to conditions based on the speech levels and mood. In the case where the speaker is a superior, ‘-ni-in-’ is used in a declarative sentence. These are phon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s, and ‘-ni-’ appears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n the case when the listener is a superior, the speaker used the honorific style, ‘-ne-’ used in declaratives and interrogatives. This is a fusion form of ‘-ni-’ and ‘-iji-’.

Second, the use of ‘-ni-’ also conveys whether or not a condition is permanent or transitory. When ‘-ni-’ is used, it expresses a permanent state and when ‘-ni-’ is omitted, it implies a temporary state.

* **Key words:** Adjectives, Two Present Tenses, Temporary State, Permanent State.

<논문 받은 날: 2006. 12. 30.>

<신기로 한 날: 2007. 3. 9.>